

“광주은행 매각 효과, 지역환원 때 가장 크다”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 세미나

지역공헌 등 비경제적 가치 우선 반영을 민영화 이후 건전성·안전성 퇴보 우려도

광주은행 매각 본입찰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계량적 가치보다는 지역사회 공헌과 인재·산업 육성 등 비계량적 가치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구 미래경제개발연구원장은 3일 광주 YMCA에서 (사)광주전남비전21(이사장 윤장현)과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 주최로 열린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방은행(광주은행)의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을 심도 깊게 고찰, 금융산업 비전에 반영하려는 노력없이 어떻게 해서든 매각만 시도하고 있다”며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계량적

가치를 중점에 둔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금융전문가들이 광주은행의 총가치를 100으로 볼 때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32.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는 지방중소기업지원자(23.23%), 지역민에 금융편익제공(17.72%), 지역고용창출과 인재육성(15.35%),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11.41%)으로 답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77%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전문가와 내부구성원들의 견해를 추적, 광주은행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비경제적 가치 창출을 현 예 금보합공사 체제하에서 100, 168, 타지역 금융기관 인수시는 192, 249, 지역 환원시는 331, 835로 결론 내렸다.



3일 광주 동구 YMCA에서 열린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전략’ 세미나에서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 원장은 “광주은행의 총가치를 현 예보 체제에서 1로 본다면 타지역 금융기관 인수시는 1.64, 지역환원시는 4.35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론이 광주은행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환원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그러나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에 대해 금융전문가와 내부에서 걱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현 예보 체제하의 광주은행 건전성, 안전성은 각각 3.40이지만 지역환원 등 민영화가 될 경우 2.60, 2.53 등으로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도 건전성은 3.39→3.28, 안전성은 3.25→3.20 등으로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론적으로 “광주은행이 지역 환원되더라도 나쁜 지배(경영)구조가 출현하면 (건전성과 안전성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현 예보 체제보다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역환원은 좋은 지배(경영)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회로 나선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은행은 지역실물 경제를 이끄는 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능한 기술과 인력을 키우고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 환원에 있어 중요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차별로 자본의 역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은행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역민 모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를 기준으로 전략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공동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 광주노조 김장김치 나눔 NH농협 광주노조(위원장 박삼지)는 지난 2일 광산구청에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50박스)와 김줄 2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농협 제공>

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70%대 한국GM·쌍용차 월간 최고 판매량 기록

현대·기아자동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4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은 45.6%(5만4302대), 기아차는 32.7%(3만8952대)로, 두 회사의 점유율은 합산 78.3%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83.2%까지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등을 1~7월 평균 80%선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지만 8월 78.6%로 내려간 뒤 좀처럼 8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현대차 11.9%, 기아차는 12.3%가 각각 빠졌다. 현대차는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 실적에서도 1.3%가 줄었다. 올해 9월 이후 실적 부진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12월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판매가 급증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완성차 업체는 한국GM 11.8%(1만4100대), 쌍용자동차 5.5%(6540대), 르노삼성자동차 4.4%(5301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나란히 올해 월간 최고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선전했다. 특히 쌍용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무려 48.5% 증가해 르노삼성을 끌어올려 4위를 차지했다. /김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17대 노조위원장 강대옥씨 당선

광주은행 17대 노조위원장으로 강대옥(44) 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당선됐다.

광주은행 노조는 2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을 비롯한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 광주은행 1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강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1003표 중 64.6%인 648표를 얻어 노조 전 조 직국장 출신인 유영학(44)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 3년의 신임 노조위원장은 내년 1~2월 대의원 대회에서 취임일이 확정되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강 당선자는 “코앞에 다가온 광주

은행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광주은행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정부가 매각을 추진중인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환원을 위해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해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희망가게’ 양동시장에 1호점 오픈

리모델링 지원·판매교육 지역상생발전 협약 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 광주신세계가 후원하는 ‘희망가게’ 1호점이 됐다.

광주신세계는 지역사회의 공존공영 활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양동시장 내 농산물 도매점 ‘야채박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4일 오픈식을 갖는다.

‘광주신세계 희망가게’의 시작은 광주신세계가 지난 8월 양동시장상인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체결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희망가게 프로젝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3개월여만에 ‘희망가게 1호점’을 오픈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희망가게 1호점’의 성공적 오픈을 위해 광주신세계는 지난 달부터 양동



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이 백화점의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희망가게’ 1호점에서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시장 ‘야채박사’에 대한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위해 1000여만원의 공사를 투입했으며 매장 집기 교체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 백화점 광고 디자인 담당자를 파견해 ‘야채박사’를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에 적합한 환경을 실시하고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희망가게 1호점 오픈은 지역사회와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광주신세계와 양동시장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양동시장 내 ‘희망가게’ 2호점, 3호점이 연이어 오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 김치 ‘김치光’ 일본 첫 수출

광주시는 시의 김치 브랜드 ‘김치光’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고 3일 밝혔다.

총 40t(27만불 상당)가량의 김치가 일본의 최대 유통업체 카타롱 하우스(Catalog House)에 수출된다. 카타롱 하우스를 통해 일본 각지에 유통된다.

이번 수출은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의 자회사인 광주명품김치와

유통회사인 유니온커뮤니티가 지난 10월 제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기간에 김치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남택수 광주시 생명농업과 사무관은 “세계 각국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저염식 김치를 개발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09.36 (-21.42)	508.16 (-4.52)	3.04% (0.00)	1061.20원 (+4.00)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원비)

구분	영업시간	상인회회원비	취향어린이	마취해어린이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홍골레 Yungol ₩10,800	베이컨 까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볼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bolo steak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

포그리고 일할때 역시 포그리

무릎통증 예방

포그리 착용이 필요할 때

- ☑ 포그리고 발일 작업 시
- ☑ 포그리고 산업체 응접 또는 조립작업 시
- ☑ 포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시
- ☑ 포그리고 레저 등 휴식할 때
- ☑ 포그리고 농식품 가공 작업 시
- ☑ 포그리고하는 그 외 모든 작업 시

포그리 (주)엔뉴 062)652-2587